

제2장 삼한시대

삼한은 백제와 신라가 왕국으로 출발하기 이전에 한반도 중·남부 지방에 형성되어 있었던 마한·진한·변한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삼한의 성립시기에 대하여는 이렇다할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기원전후 시기부터 서기 300년경까지의 시기로 보는 경향이 많다.

삼한의 성립 시기에 대하여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위치 또한 만족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조선후기 실학자 한백겸이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에서 마한을 경기 충청 전라도 지역에 비정하고, 진한과 변한을 경상도 지역에 비정한 이래,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대부분 이 설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보령 지역은 삼한시대에 마한의 영역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한은 모두 78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한이 54국, 진한과 변한이 각각 12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삼한시대는 청동기시대부터 시작된 벼농사가 더욱 널리 보급되고, 새로이 철기 문화가 전해오면서 삼한지역이 철기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벼농사의 성행과 이 시기부터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철제 농기구의 존재는 수확량의 증가를 초래한 반면에 한편으로는 집단 간의 갈등도 심해져서 큰 집단에 의해 작은 집단의 병합이 가속되어 가는 속에 삼한에는 모두 78개의 소국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보령지역이 속한 마한은 54개의 소국(小國)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소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2-3개 면(面)을 합친 것과 같은 크기에 큰 것은 1만여 가(家), 작은 것은 수천 가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마한에는 이러한 크고 작은 소국들을 모두 합하여 10여 만 호(戶)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 마한 54개 소국의 위치 비정은 다음과 같다.

| 소 국 명 | 현 재 지 명 | |
|--------------------|-----------------|--------------|
| | 이 병 도 설 | 천 관 우 설 |
| 원양국(爰襄國) | 경기 화성군 남양면 일대 | 경기 파주 연천방면? |
| 모수국(牟水國) | 경기 수원시 일대 | 경기 양주시 |
| 상외국(桑外國) | 경기 화성군 장안·우정면 | 경기 파주 연천? |
| 소석색국(小石索國) | 경기 서해의 어느 섬 | 경기 강화 교동 |
| 대석색국(大石索國) | 소석색국과 인접한 곳 | 경기 강화 |
| 우휴모탁국(優休牟涿國) | 경기 부천 | 강원 춘천 |
| 신분고국(臣濱沽國) | 경기 양성 지방 | 경기 가평? |
| 백제국(伯濟國) | 경지 광주 지방 | 서울 강남 |
| 속노불사국(速盧不斯國) | 경기 통진 지방 | 경기 김포시 대곶·월곶 |
| 일화국(日華國) | 미상 | 경기 양평 지평? |
| 고탄자국(古誕者國) | 미상 | 경기 양평 지평? |
| 고리국(古離國) | 경기 양주군 풍양 | 경기 여주군? |
| 노남국(怒藍國) | 경기 이천군 음죽면 일대 | 경기 이천군? |
| 목 [월] 지국(目 [月] 支國) | 충남 직산 성환 평택 등지 | 경기 인천 |
| 자리모로국(咨離牟盧國) | 경기 이천군의 일부 | 충남 서산 지곡 |
| 소위건국(素謂乾國) | 미상 | 충남 보령시 |
| 고원국(古爰國) | 미상 | 충남 당진? |
| 막로국(莫盧國) | 미상 | 충남 예산 덕산 |
| 비리국(卑離國) | 전북 옥구군 회면 일대 | 충남 예산 덕산 |
| 점리비국(占離卑國) | 전국 고부군? | 충남 홍성군 결성? |
| 신흔국(臣鬻國) | 충남 구진금현? | 충남 온양? |
| 지침국(支侵國) | 충남 대흥지방(예산군 일부) | 충남 예산군 대흥 |
| 구노국(拘盧國) | 충남 청양군? | 충남 청양군 |
| 비미국(卑彌國) | 충남 서천군의 일부? | 충남 서천군 비인? |
| 감해비리국(監奚卑離國) | 충남 홍성군 | 충남 공주시 |
| 고포국(固浦國) | 미상 | 충남 부여군 |
| 치리국(致利鞠國) | 충남 서산시 지곡면 일대 | 충남 서천군 한산 |
| 염로국(冉路國) | 미상 | 전북 익산시 함열 |

| | | |
|----------------|--------------------|----------------|
| 아림국(兒林國) | 충남 서천군? | 충남 서천군 |
| 사로국(駟盧國) | 충남 홍성군 장곡면 | 충남 논산군 은진? |
| 내비리국(內卑離國) | 미상 | 충남 대전 유성 |
| 감해국(感奚國) | 전북 함열 | 전북 익산시 |
| 만로국(萬盧國) | 충남 보령시 남포 | 전북 옥구군 |
| 벽비리국(辟卑離國) | 전북 김제 혹은 전남 보성군 일대 | 전북 김제시 |
| 구사오단국(臼斯烏旦國) | 전남 장성군 진원면 일대 | 전북 김제시 금구 |
| 일리국(一離國) | 미상 | 전북 부안 태인? |
| 불미국(不彌國) | 전남 나주시 | 전북 부안 태인? |
| 지반국(支半國) | 미상 | 전북 부안 태인? |
| 구소국(狗素國) | 위명(僞名)으로 간주 | 전북 정읍군 고부 |
| 첩로국(捷路國) | 미상 | 전북 정읍시 |
| 모노비리국(牟盧卑離國) | 전북 고창군 | 전북 고창군 |
| 신소도국(臣蘇塗國) | 충남 태안(서산) | 전북 고창군 흥덕 |
| 막로국(莫盧國) | 중복되어 나온 것으로 간주 | 전남 영광군 |
| 고랍국(古臘國) | 전북 안원군 | 전남 장성군 |
| 임소반국(臨素半國) | 전북 옥구군 | 전남 광산 나주? |
| 신운신국(臣雲新國) | 충남 천안시? | 전남 광산 나주? |
| 여래비리국(如來卑離國) | 전북 여산 지방 | 전남 화순군 능주 |
| 초산도비리국(楚山塗卑離國) | 전북 정읍시 | 전남 진도군 군내면 |
| 일난국(一難國) | 미상 | 전남 영암군 |
| 구해국(拘奚國) | 전남 강진군 | 전남 해남군 마산 |
| 불운국(不雲國) | 충남 공주의 서부인 듯 | 전남 보성군 북내 이복성? |
| 불사분사국(不斯濱邪國) | 전북 전주 | 전남 승주군 낙안 |
| 원지국(爰池國) | 미상 | 전남 여수 |
| 건마국(乾馬國) | 전북 익산시 | 전남 장흥군 |
| 초리국(楚離國) | 미상 | 전남 고흥군 남양 |

자료 : 홍주대관(2002)

주 : △표시는 이병도설에서 소국으로 규정된 소국임.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령지역은 마한 54개국 중 이병도설에 의하면 만로국(萬盧國)에 속했을 것으로 비정되고, 천관우설에 의하면 소위건국(素謂乾國)에 속했을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는 구로국(拘盧國) 염로국(冉路國) 비미국(卑彌國) 감해비리국(監奚卑離國) 점리비국(占離卑國) 등이 있어 이들과 함께 보령 지역의 삼한시대를 이끌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삼한 중에서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컸으며, 마한을 이루고 있는 소국의 하나인 목지국(目支國) 또는 월지국(月支國)의 지배자가 마한왕 또는 진왕으로 추대되어 삼한 전체의 주도세력이 되었다. 삼한의 지배자 중 세력이 큰 것은 신지, 견지 등으로, 작은 것은 부례 읍차 등으로 불렸다.

삼한에는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그리고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소국의 사람들은 읍락에 살면서 농업과 수공업 생산을 담당하였으며, 초가지붕의 움집 등에서 살았다. 삼한에서는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뒤인 5월의 수릿날과 가을 곡식을 거둬들이는 10월에 계절제를 열어 하늘에 제사지냈다. 이러한 제천행사 때에는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날마다 음식과 술을 마련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았다.

삼한시대 보령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던 소국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하여는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삼한시대의 모습과 비슷한 생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읍락의 중심은 백제가 들어선 이후 군현이 설치되는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일대와 웅천읍 웅천천 유역 수부리 일대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고려대학교에서 발굴한 보령지역의 삼한시대 모습을 알려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고고학적 자료가 주목된다.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에서는 초기 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묘제로 보이는 주구묘(周溝墓)가 발견되었다. 주구묘라 부르는 이 독특한 형태의 무덤은 시신을 묻은 무덤 주체부의 주위를 돌아가면서 도랑을 판 형태인데, 관창리에서 조사된 이후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발견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창리에서는 99기의 주구묘가 발굴되었는데 대형은 한 변이 20m를 넘지만 대부분 12~15m정도의 크기이다. 무덤의 매장 주체부는 토광을 파서 목관을 안치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유실되었고, 유물은 매장 주체부뿐 아니라 주위를 두른 도랑에서도 발견되었다. 송국리형 옹형토기, 원형 점토대토기, 두형토기(豆形土器), 흑색 마연토기, 동경, 관옥 등이 출토되었다